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맞춤형 지역 의견 수렴

중동구 통합·조정, 서구 분할 주제 주민 등 설명회

"자치단체 역량 강화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 기대"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갖는다. 사진은 올해 1월 열린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출범식.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중구·동구 통합·조정과 서구 분할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맞춤형 지역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1월 시민·전문가·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 소통기구인 시민소통협의체가 출범한데 이어, 중·동·서구 권역별, 대상별로 주요 사회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소통협의체는 지역별 맞춤형 소통을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로 13일 △'중·동구 조정·통합' 분과 회의를 개최하며 중·동구의원을 초청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4일 △'서구 분할' 분과회의를 개최해 행정체제개편안에 관한 지역 현안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7일에는 지방의회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체 회의를 개최해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문성과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해 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 설명회도 개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동·서구별*로 진행되며, 주민설명회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권역별**로 진행 될 예정이다. * 중구(3.24), 동구(3.23), 서구(3.22) ** 중구(4.3~4.4 / 2회), 동구(3.29 / 1회), 서구(3.29~3.31 / 3회)

또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현재의 인천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자치단체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한만큼 시민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동력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강화군, 자연과 함께하는 숲체험 영어교실

석모도 수목원 최초 운영…캐나다 국적 엘리 벌린든 원어민 강사 채용

강화군 숲체험 영어교실이 개강한다. (사진=인천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이 오는 20일부터 석모도 수목원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숲체험 영어교실'이 본격 개강한다고 밝혔다. 숲체험 영어교실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수목원에서 다양한 숲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다.

꽃, 곤충, 색, 소리 등 자연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영어교실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참여가능하다. 또한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있다. 한편, 군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강사 '엘리 벌린든(Elly Verlinden)'을 채용했다. 캐나다 명문 토론토대학에서 지구과학 전공과 동아시아학을 부전공했으며, 현재 오타와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201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부천시 등의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했으며, 한국어도 유창해 영어에 자신 없는 참가자들도 걱정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숲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영어교실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함께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숲체험 영어교실은 현재 정기반 및 수시 참여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석모도 수목원(☎032-932-5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대만가오슝한인회, 재외동포 인천 유치 지지

시의회 '해양클러스터·항만재개발특위' 가오슝시의회 방문 교류

대만가오슝한인회가 재외동포 인천 유치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대만 가오슝시한인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인천시의회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호)'는 지난 9일(현지시간) 가오슝시의회를 찾아 양 도시 의회 간 교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같이 자리한 가오슝시한인회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박창호 위원장, 신영희·박판순·신성영 의원, 한인회 강영화 이사장 및 윤환희(가오슝세종학당 교장) 부이사장, 조미연 총간사, 가오슝한국국제학교 서수석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

이로써 이번 가오슝시한인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은 지난해 11월 유럽한인총연합회, 12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및 미국 하와이 소재 한인회, 올 2월 홍콩한인상공회의소 등에 이어 재외동포사회의 다섯 번째 공식적인 지지 선언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전세계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가오슝시한인회 강영화 이사장은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보여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가오슝시한인회는 인천이 재외동포청의 최적지임을 확신하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허식 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재외동포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으며, 그 중심에 이민사의 출발점인 인천이 있다"며 "이번 가오슝시한인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은 인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500여 명의 사할린 동포와 1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이주민이 살고 있는 포용력을 가진 융합도시"라면서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 광역교통망 등을 가진 지리적 편의성과 120년 전 한국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로서의 역사적 당위성,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는 대만에서 가장 큰 항만 도시로, 국제공항도 갖추고 있는 등 인천과 유사한 점이 많은 가오슝시를 찾아 보얼예술특구 등 항만 재개발사업 현장과 항만시설 등을 시찰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인천경제청, 워터프런트 1-2단계 설계 주민 설명회

송도국제도시 6공구 유수지-북측수로 연결

30일 G타워…친수 스텐드·수변로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유수지와 북측수로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1-2단계 실시설계(안)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준공한 1-1단계 사업에 이어 추진 예정인 1-2단계 사업의 실시설계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워터프런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아트센터 화장, 친수 스텐드 설치, 수변로드, 친수공간 확장, 호안옹벽의 경관 개선, 스윙벤치, 태포분수, 바닥분수, 인공 야자수, 레터링, 벚꽃 파라솔, 전망대, 포토존 등을 골자로 하는 실시설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을 착공할 경우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인 준설공사 및 교량공사와 관련한 우회도로 공사가 2년 동안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착공,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 2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안)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기본설계를 거쳐 오는 2025년 기술제안 공사입찰 방식으로 착공,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서구, 조기 언어치료 지원 비대면 설명회

치료사 5~7명 등 사업 확대

인천 서구가 10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기 언어치료 지원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열고 언어치료사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장애통합 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을 시작했다. 구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언어치료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1:1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부모와 보육교사 등에게 호응을 얻어 올해는 인천시가 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구에서도 올해 언어치료사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해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angyh6240@naver.com

캄보디아 친환경 농업 등 개발도상국 지원 논의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녹색기후기금(이하 'GCF') 이사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GCF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재해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대응관련 금융국제기구로, 2013년 인천에 GCF사무국 본부가 둥지를 틀었다.

그동안 GCF는 34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 등 209건의 사업(총 416억 달러)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4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제35차 GCF이사회는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프랑스) GCF사무총장, 장 크리스토프 도넬리에(Jean Christophe DONNELLIER, 프랑스), 틀로우 엠마누엘 라마루(Tlou Emmanuel RAMARU,남아공) 공동의장을 비롯해 48개 이사국, 이행기구, 옵저버 등 관계자 300여명이 모여 제2차 재원보충 방안,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될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은 캄보디아 친환경 농업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 필리핀 농업 기후변화 적응 사업, 볼리비아 농촌지역 기후복원력 증진 사업 등 33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이다.

또한 2023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야닉 글레마렉 GCF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사무총장 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관광공사, 연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에게 인천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과 함께 지역대학생이 자원봉사자로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35차 GCF이사회가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GCF사무국 본부가 인천에 둥지를 튼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글로벌 녹색기후금융도시인 우리 인천은 GCF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iilbo.com

편집·정다정 기자